

성 평등 실현 첫걸음 '광산여성이 외치다'

광산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6~9일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참여·관심 유도 SNS 이벤트, 영화 '양림동 소녀' 상영, 북토크 등

광주 광산구가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 성 평등을 실현하는 축제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마을 곳곳에서, 주민, 이주여성, 청소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돼 여성의 권리 신장, 사회 불평등 해소 등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광산여성이 외치다'를 슬로건으로 광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주간 행사를 연다.

세계 여성의 날의 가치와 의미를 많은 시민이 함께 체험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동참하는 새로운 성

평등 축제의 장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첫 시작으로 6일 수완동에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펼치는 '여자의 길, 그들에게 듣는다' 행사가 예정돼 있다. 각자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7일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여성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선 광산구 관내 여성친화기업을 방문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당신의 3월 8일 알려주세요'를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념주간의 '하이라이트'인 기념식은 8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양성평등 기반 강화, 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 등

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 '상생하는 성평등 광산' 실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본 행사에 앞서 청년 댄스팀 '일브로(ILL BRO)'는 20세기 초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를 재해석한 댄스 공연을 선보인다.

기념식 이후에는 진도에서 태어나 광주 양림동으로 옮겨온 소녀 임영희씨의 일생을 다룬 생애구술사 애니메이션 '양림동 소녀'를 상영한다. 이후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대표의 사회로 임영희 감독과의 토크쇼도 연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세계 여성의 날 제정 배경이 된 1908년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적 구호인 빵과 장미를 전 직원과 나누며 성평등 조직 문화조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날 광산구 마을 곳곳에서도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송정1동 주민은 장날을 맞은 송정5일 시장 사거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는 피켓팅, 캠페인을 예고했다.

첨단1동은 청소년 성평등 인식 제고 OX 퀴즈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준비중이고, 신장동은 노미숙 한국그림책문화협회 이사장과 함께 여성 삶의 길잡이가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하고,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북토크쇼를 연다.

광산구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방탄이주여성단'은 기후 행동에 나선다. '방탄'은 탄소 방어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 속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광산구 이주여성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여성주간 마지막날인 9일에는 광산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영화 '서프러제트' 상영회도 예정돼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성평등은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상생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구정의 지향점을 성평등에 두고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청년도전 사업' 참여자 모집 광산구, 6월 30일까지 상시

광주 광산구는 "지역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직업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9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이다. 광산구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1개월 단기, 5개월 중·장기로 프로그램을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작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 대해서는 50만원, 장기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은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된다. 다만, 인원이 충족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워크넷'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검색하거나,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 힘찬 첫발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TF 위촉 첫 회의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광산구는 지난 27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TF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압체에 위탁하던 기본계획 수립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속가능한 고려인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선 고려인 및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TF를 구성하게 됐다는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날 출범한 TF는 문화·관광·홍보·도시디자인 등 5개 분야 전문가 15인을 포함해 광산구의회 의원, 주민 대표, 행정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첫 회의에서는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 도약을 위한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사업 개요 설명, 향후 TF 운영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TF는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바로 내달 초 고려인마을의 핵심 거점

인 월곡고려인문화관 및 흥범도 장군 흉상, 세계음식거리문화 등을 방문해 현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3~4인으로 구성된 분과를 가동하고, 주 1~2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말께 최종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아특회계(아시아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TF는 고려인마을의 미래, 관광도시 광주의 위상을 좌우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며 "각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월곡동 일대를 광주 대표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월곡 2동 행정복지센터와 동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9개 사회단체는 지난 27일 '환경관리 책임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곡2동 민·관 협력 환경개선운동 펼친다

'환경관리 책임제' 협약...녹색 파수꾼·환경정화의 날 운영

광주 광산구 월곡 2동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1일 광산구 월곡 2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월곡 2동은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 쓰레기 불법 투기마저 성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월곡2동은 결국 지난 27일 동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9개 사회단체와 '환경관리 책임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월곡2동 사회단체들은 불법 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책임 구간을 정해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분리수거 활성화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월곡 2동은 이달부터 깨끗한 마을환경

지킴이가 될 '아·주·신·나 녹색 파수꾼'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다. '아·주·신·나'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주위보기 ▲신고하기 ▲나부터 실천하기 등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마을환경에 관심 있는 월곡2동 주민들도 2인 1조로 상습 불법투기 지역 예찰, 환경정화활동, 불법투기 감시 및 신고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매월 '환경정화의 날'도 운영한다. 주민, 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일제 대청소, 주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월곡2동은 이번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투기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안복 월곡 2동 주민자치회장은 "민·관이 합심해 깨끗하고 쾌적한 월곡 2동을 만들어 가는 게 올해 목표"라면서 "많은 주민의 동참을 유도해 쓰레기 투기 없는 마을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박병규 구청장,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위해 자매·교류도시에 기부금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자매·교류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

박 구청장은 지난 27일 NH농협은행 광산구청지점을 방문해 자매·우호 도시인 부산 동구, 경남 함양군, 대구 수성구, 경기도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전남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에 속한 담양군, 장성군,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등 총 10개 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기부가 교류도시 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광



산구는 농산물꾸러미, 우리밀선물세트, 한우·한돈, 발골 등 총 28종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산에 기부해 내 마음의 고향 광산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의미하는 '기부美人

(미인)'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기부미인 1만 명 릴레이' 기부운동 전개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집중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